

## 朝鮮時代 書院의 立地特性 및 變化過程에 관한 研究 \*

李相潤\* · 金龍基\*\*

東國大學校 造景學科\* · 成均館大學校 造景學科\*\*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ransformation of Location of Seowon in Choson Dynasty

Lee, Sang-Yun\* · Kim, Yong-K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 ABSTRACT

Seowons were first established during the Koryo Dynasty and contain private shrines for the service of ancestors and ancient sages.

Seowons were located in a scenic or rural place some distance from a residential area. The direct motive for building the Seowon came from the need for transcendental concealment and evasive retirement which developed as a result of oppression of scholars. The indirect motivations were the development of learning in an idyllic natural settings and the creation of a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location of Seowon in the Choson dynas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Seowons were in hilly areas with good geographical features including a nice view of the mountains and waters. Seowons were also built on the relation place of an ancient sage and of destroyed Buddhist temples.

2. The location patterns of seowon in the Choson dynasty underwent three stages with the change of time. Political and social phenomena influenced the transformation of the location patterns.

Research in this area is at an early stage. The present study was confined to an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location of seowons. However,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offer meaningful guide for further research.

---

\* 本論文은 1994年 3月 韓國造景學會 學術論文 發表論文의 一部임.

## I. 序論

###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書院은 조선시대의 지배정신인 崇儒思想을 바탕으로 형성된 장소로서 훌륭한 學德을 지닌 先賢先師를 追慕하는 뜻에서 文廟의 事例에 따라 春秋로 祭享을 올리는 기능과 더불어 그 學德의 精神을 본받아 그곳에서 學問을 修練하고 講究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書院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기능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修學하는 者의 心性을 기르고 苦惱를 풀 수 있는 景觀의 選擇이 必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書院은 山水가 秀麗한 風致 좋은 곳을 일부러 擇하여 立地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書院이 立地하게 되는 場所性은 특별히 중요한 要素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 결과 書院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自然景觀을 찾아서 그 立地가 선정되었거나, 선정된 立地의 自然景觀에 場所性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書院은 비단 學問의 崇尚과 先賢의 追慕 이외에 造營者 자신을 비롯한 修學者의 學問과 心性을 닦기 위해서 秀麗한 自然景觀속에 인위적으로 조영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文化的 現象이라 할 수 있겠다.

金龍基의 研究<sup>3)</sup>에 의하면, 1990년까지의 書院과 鄕校에 관한 研究는 총 13편으로 대부분의 研究들이 空間構成이나 配置計劃에 偏重되어 進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研究의 偏重現象은 대부분의 研究가 建築學分野에서 空間이나 配置에 관심을 가지고 研究를 進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現在까지의 書院에 관한 研究가 단순히 書院의 歷史的 背景이나 空間構成 등에 局限되어 進行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研究課題는 書院의 立地 등에 대한 體系的인 分析과 解釋을 통하여 特性과 變化過程을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本 研究는 이와 같은 背景에 착안하여 朝鮮時代의 書院을 대상으로 종래 등한시되어 왔던 書院의 作用因子를 파악하여 유형별로 분류하

고, 각 유형별로 연구대상지를 사례로 立地의 特性을 고찰한 후 變化過程을 규명함에 目的을 두고 수행되었다.

### 2. 研究史

書院에 대한 既存의 研究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立地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1990년 이후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완기는 書院의 立地가 일반적으로 山水가 뛰어나고 조용한 산기슭이나 계곡 또는 鄕村에 마련되고 있으며, 성격에 따라 절터 또는 퇴락한 사찰을 이용하는 경우, 先賢의 緣故地에 건립되는 경우, 書院에 배향된 先賢들이 살았을 때 세운 書堂이 발전하여 이룩된 경우로 구분하여 서원의 立地類型을 설명하고 있다.<sup>20)</sup>

이진희는 書院이 중앙조직에 의한 鄕校와 달리 마을과 거리를 두어 학문에 열중하는 선비들의 마음을 혼란케하는 요소를 극도로 배제하였으므로 대부분 구릉의 중턱에 자리하여 景觀構成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운치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 선비들의 심신수양에 도움을 주고 先賢의 講道하던 곳과 인연이 깊은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sup>4)</sup>고 주장하였다.

김은중은 書院의 立地가 문교, 행정상 관아 및 객사와는 달리 거의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이 내포한 은둔사상 때문에 官學機關과 달리 城廓, 縣治, 邑治로부터 주로 멀리 자리잡게 되어 風水에서 論하는 吉擇地에 풍광 좋은 勝地를 선정하였다고 論하고 있으며, 또한 坐向에 있어서도 주로 남향 또는 동남향의 吉向을 중심으로 많이 축조되었고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 극단적으로 불리한 좌향을 갖고 있는 경우도 다소 있다<sup>4)</sup>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종합해 보면, 書院의 立地는 단순히 風水地理說에 입각하여 解釋되고 있는데, 정치사회적 상황이나 마을과의 關聯性에 대해서도 研究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書院의 全般的인 內容과 形式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사학분야와 교육학분야의 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立地에 대한 體系的인 研究가 진행될 必要性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研究는 書院의 立地에 대한 전반적인 內容(時代的 狀況 등)과 形式(物理的 構成形式)을 考察함으로써 書院의 立地特徵과 變化過程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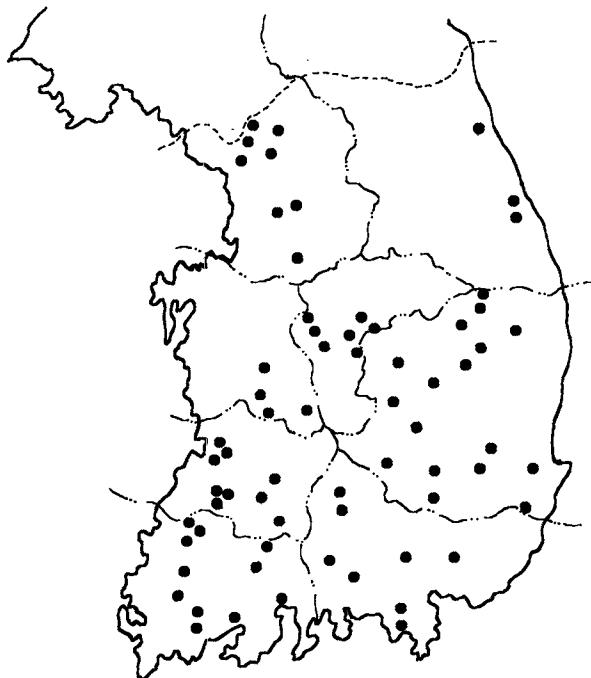
## Ⅱ. 研究의 方法

本 研究는 書院의 立地特性 및 變化過程을 규명하기 위해 書院의 立地形式에 대한 類型化를 시도하여 各 類型의 特徵과 背景을 時代的 상황

이나 造營者의 意圖를 통해 해석하는 現象學的 方法을 사용하였다.

### 1. 研究對象地 選定

事例研究對象地는 현재 남한에 散在되어 있는 350여개소의 書院 中 文化財로 지정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다음으로 建立年代推定이 용이하고, 비교적 原形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時代別·地域別 現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現地踏査를 통해 41개소, 그의 設問調査를 통해 39개소, 기타 關聯論文을 통해 分析이 가능한 23개소의 書院을 포함시켜 총 103개소를 選定하였다(그림 1).



- 경기(파산, 충렬, 용주, 우저, 심곡, 용연, 덕봉, 노강)
- 강원(오봉, 송담, 산양)
- 충북(상현, 신히, 화암, 덕천, 화양, 서계, 백륙)
- 충남(창강, 둔암, 노강, 충곡, 용강, 성암, 퇴수)
- 전북(남산, 남고, 신안, 무성, 두곡, 학정, 도계, 귀암, 죽계, 풍계, 용장, 저산)
- 전남(옥천, 필암, 수암, 내산, 강성, 죽정, 설제, 미천, 봉암, 덕양, 연곡, 점천, 방춘, 제동, 고산)
- 경북(소수, 임고, 서악, 도동, 선암, 금오, 역동, 옥산, 도산, 자계, 삼계, 오천, 청성, 문양, 도잠, 명산, 예연, 회연, 임천, 입암, 명계, 귀암, 구천, 금호, 창대, 홍암, 고천, 도정, 이락, 고산, 녹동, 노동, 인홍, 봉암, 아산, 학삼)
- 경남(남계, 예립, 덕천, 도천, 서계, 중천, 도연, 반곡, 서산, 갈천, 도산, 송호, 수림, 위계, 청계)

(그림 1) 事例研究對象地의 分布圖

## 2. 研究方法

本 研究를 위한 基本調査는 크게 文獻調査와 現地調査 및 設問調査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文獻調査는 書院에 관련되는 考證資料와 造營者의 文集 등을 수집하여 物理的 構成形式에 대한 解釋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現地調査는 1992年 12月 20日부터 1993年 1月 30日까지 41개소의 研究對象地를 중심으로 現況調査와 寫眞撮影을 실시하여 書院의 立地에 대한 資料를 수집하였고, 특히 書院 關係者와의 인터뷰 및 觀察을 통해 資料蒐集을 並行하였다. 한편, 設問調査는 書院의 來歷이나 沿革, 配享者, 立地에 따른 傳說이나 說話, 書院이 위치하는 마을名, 書院의 마을內 位置, 書院紹介冊子, 周邊略圖 등 총 7개 문항을 作成하여 1993년 5월 26일 所在把握이 가능한 전국 172개소의 書院을 대상으로 設問紙를 郵便發送하여 回收된 41개소 중 39개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本 研究는 書院의 立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書院의 非物的 現象에 관련되는 시대적 상황이나 造營者의 思想에 관한 相關資料를 토대로 立地의 特性 및 變化過程에 관한 研究를 진행하였다.

立地의 特性 및 變化過程은 書院의 立地를 선정하는데 相關되는 非物的 現象인 정치사회적 상황을 토대로 시대별 특징을 파악하고, 書院 周邊의 環境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自然環境은 서원의 地形的 條件과 水의 有無 및 形態를 시대별·지역별로 분석하여 변화과정을 도출하였고, 人文環境은 마을과의 相關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원의 마을내에서의 位置와 距離를 시대별·지역별로 分析을 실시하여 변화과정을 도출하였다.

## Ⅲ. 書院의 立地特性 및 變化過程

### 1. 立地의 特性 및 變化過程

書院은 조선 중기의 정치사회상을 바탕으로 하

여 성립된 문화적 현상의 하나이므로 書院의 발달과정은 시대상황과 밀접한 相關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대상황은 書院의 발달과정속에서 書院의 立地와 空間構成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변화·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대상황과 더불어 立地의 選定에는 書院 周邊의 環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書院이 수려한 자연경관에 입지가 선정되기도 하지만, 書院의 발달과정에서 마을뒤 산기슭이나 마을 어귀 혹은 마을중앙에 입지가 선정되어 마을과 밀접한 相關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本 章에서는 書院 創建時의 시대적 상황과 주변환경적 상황을 상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立地의 特性 및 變化過程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立地選定背景

書院은 講學과 祭享 및 藏修機能이 주가 되는 私學이며 鄉村支配機構로서 주로 선현의 연고지에 건립되고 있으나 사찰터나 서당·정사가 書院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러한 立地選定背景은 2가지 측면에서 解釋될 수 있겠다. 첫째, 연고지에 건립된 경우는 造營者가 가진 場所性의 認識에 바탕을 두고 입지가 선정되고 있으며, 둘째, 사찰터에 건립되거나 서당·정사가 발전된 경우는 이들 場所가 가진 性格의 變化에 따라 立地選定이 이루어지고 있다.

#### 1) 造營者의 場所性 認識

事例研究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書院들은 19세기까지 연고지에 書院이 건립되고 있었다. 表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세기에 건립된 書院들은 17개소로 전체 82개소의 서원 중 약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서원들은 崇儒思想에 의해 선현의 연고지에 건립되고 있었다. 17세기 이후에 건립된 書院들은 65개소로 전체 事例研究地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書院이 발전하는 가운데 성격이 변화되어 主享者의 연고지를 바탕으로 하여 문중이나 가문의 조상을 선현과 연관시켜 配享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表 1> 緣故地에 건립된 書院의 時代別·地域別 分布

道/時期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합계
경기도	3	5				8
강원도	1	1		1		3
충청도	2	4	5			11
전라도	3	13	8			24
경상도	8	11	9	7	1	36
합 계	17	34	22	8	1	82

연고지는 先賢의 탄생, 거주, 죽음에 관련되는 장소로서 이는 先賢을 享祀하는 의미에서 이들 장소에 聖의 意味가 가미되어 聖所化되는 가운데 형성되고 있다. 즉, 書院의 立地는 선현을 추모하는 가운데 조영자의 장소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연고지에 건립된 書院들은 조영자의 장소성에 대한 인식이 立地選定背景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 場所의 性格變化

書院은 주로 선현의 연고지에 건립되고 있으나, 조선시대의 지배정신인 崇儒思想에 의해 사찰터가 기능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운데 書院이 건립되거나 또는 서당·정사가 書院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치며 立地가 형성되기도 한다.

사찰터가 성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운데 건립된 書院으로는 소수, 예림, 옥산, 필암, 임천, 노강서원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16, 17세기에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출현하고 있다. 表 2에서 살펴보면, 경북지방의 서원이 5개소로 전체 事例研究地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表 2> 사찰터에 건립된 書院의 時代別·地域別 分布

道/時期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합계
충청도		1				1
전라도	1					1
경상도	3	2				5
합 계	4	3				7

기타 16, 17세기의 많은 書院들의 立地가 여러 문헌과 기록을 통해 불때 廢寺나 廢寺 直前의 사찰터에 건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찰터에 私學이 건립되는 원인은 다음의 두가지 관점에서 解釋될 수 있겠다.

첫째, 이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崇儒抑佛政策이므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수려한 自然景觀에 주로 立地하는 사찰터에 私學을 건립함으로써 주변의 自然景觀을 그대로 借景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둘째 사찰터를 이용하는데 따른 경제적 이득을 들 수 있다. 즉, 단순히 사찰터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찰에 관련된 승려를 私學을 건립하는데 使役시킴으로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私學築造에 경제적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書堂·精舍가 발전된 경우는 16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14개소의 書院에서 그 例가 발견되었다. 表 3에서 보면, 시대별로 16, 17세기에 건립된 서원이 11개소로 전체 事例研究地의 약 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상도의 서원이 10개소로 전체 事例研究地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書堂이나 精舍가 발전된 경우중 덕천, 서계,

병산, 둔암서원은 선현의 연고지와 의 상관성에 의해 書院의 立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연, 화양, 고산서원은 曲과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찰터에 건립되거나 서당·정사가 발전된 경우는 대부분 16, 17세기에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립되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崇儒思想에 의해 佛敎의 儒敎化와 興學政策에 의해 이들 장소에 성격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원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연구지를 立地選定背景에 따라 분석한 결과,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書院數의 약 80퍼센트에 이르는 書院이 선현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서당·정사가 발전되거나 사찰터에 건립된 경우는 약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書院들은 대부분 연고지에 건립되고 있으나, 충청도와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의 書院들은 선현의 연고지를 배경으로 하여 사찰터에 건립되거나 서당·정사가 발전된 경우도 부분적으로 출현하고 있었다. 특히 경상도의 書院은 약 70퍼센트가 연고지에 건립되고 있으나, 나머지 30퍼센트는 사찰터나 서당·정사가 발전된 경우로 타지역에 비해 설립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表 3〉 書堂·精舍가 발전된 書院의 時代別·地域別 分布

道/時期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합계
충청도		2				2
전라도	1				1	2
경상도	4	4	1		1	10
합 계	5	6	1		2	14

〈表 4〉 事例研究地의 立地選定背景

道/背景	연고지 건립	사찰터 건립	서당·정사 발전	합계
경기도	8			8
강원도	3	3		
충청도	11	1	2	14
전라도	24	1	2	27
경상도	36	5	10	51
합 계	82	7	14	157

## 2. 書院 주변의 環境

書院 주변의 環境은 크게 自然環境과 人文環境으로 구분되는데, 自然環境은 山水와 관련된 지형적 특성을 통해 분석하고, 人文環境은 書院이 위치한 마을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여 人文地理의 관점에서 立地의 性格과 變化過程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自然環境

書院이 立地한 장소의 自然環境의 特性은 일반적으로 風水地理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書院의 地形的 特性이나 立地觀을 설명하는데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 즉, 書院의 坐向이 북향이나 북서향을 취할 경우 이를 단순히 자연지세와의 조화로 해석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을 포함하여 주변의 여러 관련대상들과의 상관성에 대해 뚜렷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本 研究에서는 書院의 地形的 特性을 파악하기 위해 立地類型 및 空間構造에 따른 分類<sup>12)</sup>를 기초로 하여 自然環境을 地形的 條件과 水의 有無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地形的 條件은 平地型과 山地型으로 大別하

고, 山地型은 다시 丘陵型과 溪谷型으로 구분하였으며, 水는 有無에 따라 溪流型과 無溪流型으로 大別하고, 溪流型은 形態에 따라 다시 流水型과 止水型으로 細分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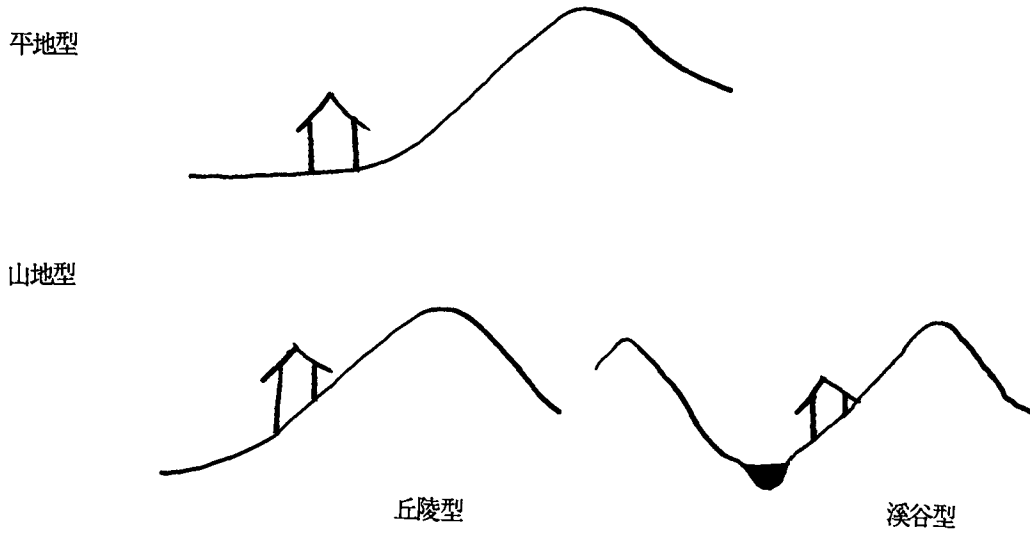
### ① 地形的 條件

지형적 조건에 따른 立地類型의 模式圖는 그림 2와 같다. 書院의 지형적 조건을 表 5에서 살펴보면, 사례연구대상지 중 平地型에 속하는 5개소의 書院을 제외하고 나머지 98개소의 서원이 丘陵이나 계곡에 해당하는 山地型에 속하고 있다.

平地型에 속하는 書院은 영남지방의 서악, 선암, 창대서원과 호남지방의 필암, 죽정서원으로 慶北과 全南地方에 출현하고 있다.

山地型에 속하는 丘陵型은 산기슭에 書院이 위치하는 類型으로 사례연구지의 약 7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溪谷型은 계곡 兩岸에 書院이 위치하여 계류상에 나타나는 암반이나 수목 등의 自然景觀을 조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類型으로 사례연구지의 약 2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書院들이 山地型에 속하므로서 山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書院 전면의 自然景觀을 書院內로 끌어들이기 위한 現象으로 여겨진다.



(그림 2) 地形的 條件에 따른 立地類型 模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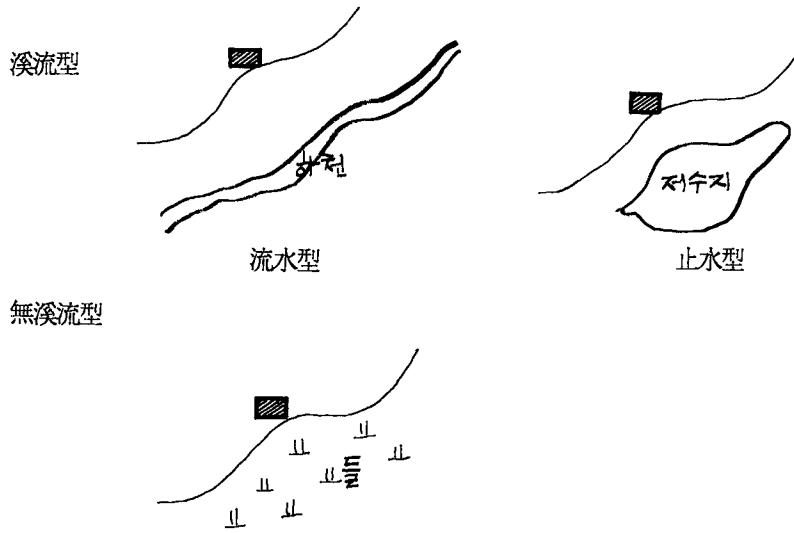
<表 5> 地形的 條件에 따른 立地類型

類型/道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합 계	
平地型					필암, 죽정	서악, 선암, 창대	5	
山地型	丘陵型	파산, 충렬우지, 심곡, 덕봉, 노강	오봉	신항, 창강둔압, 노강, 충곡, 덕천, 서계, 백록, 용강, 성암, 퇴수	남산, 남고신안, 무성수암, 두곡내산, 도계강성, 설재미천, 봉암연곡, 귀암, 겸천, 죽계, 방춘, 계동, 풍계, 용장, 저산, 고산	남계, 임고, 예림, 도동, 금오, 역동, 도산, 덕천, 자계, 삼계, 오천, 도천, 청성, 문양, 도잠, 병산, 예연, 회연, 서계, 임천, 귀암, 금호, 홍암, 고천, 반곡, 서산, 갈천, 도산, 이락, 송호, 인흥, 봉암, 위계, 아산, 청계	75	98
	溪谷型	용주, 용연	송담, 산양	상현, 화암, 화양	옥천, 학정, 덕양	소수, 옥산, 종천, 입암, 명계, 구천, 도연, 도정, 고산, 녹동, 노동, 수림, 학삼	23	
합 계		8	3	14	27	51	103	



②水の 有無 및 形態  
 水の 有無 및 形態에 따른 立地類型의 模式圖  
 는 그림 3과 같다. 表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溪

流型에 속하는 서원이 76개소로 전체 사례연구지  
 의 약 74퍼센트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서원이 전  
 면에 溪流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水의 有無 및 形態에 따른 立地類型 模式圖

<表 6> 水의 有無와 形態에 따른 立地類型

類型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합 계	
溪流型	流水型	파산, 용주 우저, 용연 노강	오봉 산양	상현, 신흥 화암, 창강 둔암, 노강 덕천, 화양 백록, 용강 성암, 퇴수	옥천, 필암 수암, 내산 학정, 도계 강성, 죽정 설제, 미천 봉암, 덕양 연곡, 귀암 겸천, 죽계 제동, 용장 저산	소수, 남계, 임고 도동, 선암, 금오 옥산, 도산, 덕천 삼계, 문양, 병산 회연, 중천, 임천 입암, 명계, 금호 창대, 홍암, 고천 서산, 갈천, 도산 도정, 이락, 고산 녹동, 노동, 인홍 아산, 청계	70	76
	止水型				남산, 두곡	도잠, 도연, 반곡 수림	6	
無溪流型		충렬, 심곡 덕봉	송담	충곡, 서계	남고, 신안 무성, 방춘 풍계, 고산	서악, 예림, 역동 자계, 오천, 도천 청성, 예연, 서계 귀암, 구천, 송호 봉암, 위계, 학삼	27	
합 계		8	3	14	27	51	103	

溪流型에는 흐르는 하천을 낀 流水型과 저수지를 낀 止水型으로 나타나며, 해안에 인접한 경우도 지수형으로 보고자 한다. 流水型은 書院 전면 하천이나 계류가 인접한 類型으로서 사례연구지의 약 68퍼센트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止水型은 書院이 저수지나 해안에 인접하는 類型으로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 주로 출현하고 있다.

無溪流型은 書院 주변에 수가 존재하지 않고 野가 존재하는 경우가 보편적인데, 사례연구지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水의 有無 및 形態에 따른 書院의 立地는 대부분이 溪流型의 流水型에 속하고 있으나 無溪流型도 상당수 출현하여 書院의 立地를 결정하는데 水環境이 절대적인 作用因子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③地形的 特性的 變化過程

書院의 地形的 條件과 水의 有無에 따른 立地 類型을 表 7과 같이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丘陵流水型이 48개소로 사례연구지의 약 47퍼센트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외 丘陵無

溪流型과 溪谷流水型이 각각 23개소와 18개소로 사례연구지의 22퍼센트와 17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立地類型이 書院의 立地를 選定하는데 주요한 지형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시대별·지역별로 3단계의 變化過程을 거치며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는 형성기(1543-1574)에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丘陵流水型이 주로 출현하고 있으며, 2단계는 과도기(1575-1622)에 영·호남지방을 중심으로 丘陵無溪流型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3단계는 확산기(1623-1674)에 충청, 전라지방이, 발전기(1675-1720)에 호남, 영남, 충청지방이, 그리고 쇠퇴기(1721-1909)에는 영·호남지방이 주로 丘陵流水型을 나타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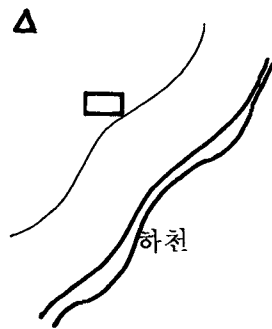
따라서 書院의 地形的 特性은 丘陵流水型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丘陵流水型 - 丘陵無溪流型 - 丘陵流水型의 變化過程을 보이고 있었다. 그외 溪谷流水型도 全時期에 걸쳐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表 7> 地形的 特性에 따른 地域別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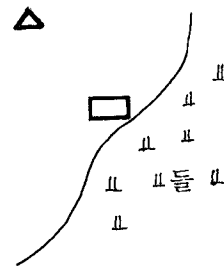
類型 / 地方	경기	강원	충청	호남	경상	합 계
平地流水型				2	2	4
平地無溪流型					1	1
丘陵流水型	3	1	9	14	21	48
丘陵止水型				2	2	4
丘陵無溪流型	3		2	6	12	23
溪谷流水型	2	1	3	3	9	18
溪谷止水型					2	2
溪谷無溪流型		1			2	3
합 계	8	3	14	27	51	103

〈表 8〉 地形的 特性에 따른 時代別 分布

類型 / 時期	형성기	과도기	확산기	발전기	쇠퇴기	합 계	
平地流水型	1	1		2		4	5
平地無溪流型	1					1	
丘陵流水型	8	5	8	19	8	48	75
丘陵止水型	1	1	1	1		4	
丘陵無溪流型	2	9	2	4	6	23	
溪谷流水型	4	2	4	3	5	18	23
溪谷止水型				1	1	2	
溪谷無溪流型			1	1	1	3	
합 계	17	18	16	31	21	103	



丘陵流水型  
형성기, 확산기  
발전기, 쇠퇴기



丘陵無溪流型  
과도기

(그림 4) 地形的 特性에 따른 立地의 變化過程 模式圖

2)人文環境

書院은 발달과정에서 鄉村支配機構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마을과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書院의 마을내에서의 위치와 마을과의 거리 등 2가지 측면에서 人文環境의 特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마을내에서의 위치

마을내에서의 위치는 마을과 인접한 경우와 격리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前者의 경우는 마을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 앞, 마을 옆, 마을뒤로 세분하였는데, 이는 書院이 단순히 마을과 인접해 있다는 측면보다 마을에서의 위치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이다.

表 9에서 살펴보면, 사례연구지의 약 3/4이 마을과 인접하여 위치해 있으며, 마을과 격리되어 위치하는 경우도 사례연구지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書院들은 대개 마을 뒤 산기슭에 위치해 있으나, 전라도의 書院은 마을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도의 書院은 마을 뒤 산기슭이나 마을과 격리되어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書院의 마을내에서의 위치는 대개 마을의 뒤편 산기슭에 立地하지만 부분적으로 마을의 입구나 중앙에 위치하기도 한다. 특히 마을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는 마을의 位階上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즉 書院이 마을내에 위치하는 경우의 性格 및 意味를 살펴보면, 書院이 마을 앞이나 옆에 위치하는 경우 대개 마을내의 宗家가 마을의 中心性과 位階性을 나타내며 書院은 마을의 領域性을 표시하는 매개역할을 담당한다.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는 宗家가 中心性을 갖는데 반해 書院은 鄉村支配機構로서 실질적인 位階性을 나타내며, 마을 뒤에 위치하는 경우는 祠堂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昇華空間을 형성하여 位階性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마을과 격리되어 立地되는 書院들의 時代別 分布를 表 10에서 살펴보면, 주로 宣祖대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肅宗代를 전후하여 肅宗 以前에는 嶺南地方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많이 출현하고 있으며, 肅宗代에는 畿湖地方에서 많은 書院들이 마을과 격리되어 위치하고 있었다.

<表 9> 地域別 書院의 마을內 位置

마을내위치/지방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합 계
마을 인 접	마을 앞		1	2	2	3	8
	마을 중앙	2		3	11	5	21
	마을 옆	1		1	3	5	10
	마을 뒤	3	2	6	6	19	36
마을 격리		2		2	5	19	28
합 계		8	3	14	27	51	103

〈表 10〉 마을과 격리된 書院들의 時代別·地域別 分布

시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비고
선조대	파산		옥천, 남산	소수, 옥산, 도산	훈구파·사림파 갈등 은둔사상의 심화
숙종이전		내산		도감, 병산, 회연 중천, 입암, 명계	임란후 사회적 불안 복인실정
숙종대	노강	덕천 화양	덕양		남인·서인의 당쟁
영조이후				도정, 이락, 노동 송호, 인홍, 봉암 수림, 위계, 아산 학삼	서원폐단에 대한 국가의 통제 세도정치

이러한 현상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東西分黨 이전에는 勳戚派와 士林派간의 갈등이 빚어져 隱遁思想이 심화되는 가운데 마을과 격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숙종 이전의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 兵禍에 대한 도피 및 北人의 失政으로, 숙종대는 南人과 西人의 黨爭이 가장 치열한 시점으로 隱遁思想의 심화로 인해 이러한 현상들이 출현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영조 이후 嶺南地方을 중심으로 많은 書院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書院에 대한 弊端으로 인해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특히 18세기의 老·小論執權 및 19세기의 勢道政治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출현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時代別 分布는 書堂·精舍가 書院으로 발전되는 過程과 일치하고 있어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表 4>. 즉 精舍가 書院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대개 士禍黨爭으로 말미암아 隱遁思想에 의해 深山幽谷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書堂이 書院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대개 마을 부근의 山川이 수려한 곳에 立地하고 있다. 前者

의 경우는 마을과 격리된 山地에 위치하고 있지만, 後者의 경우는 마을 주변의 丘陵地上에 立地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② 마을과의 거리

마을과 격리되어 위치하는 書院들은 마을과의 거리가 대략 350-400미터 정도 離隔되어 있는데, 이 거리는 徒步圈에 해당하므로 마을의 領域圈內에 書院이 위치하고 있어 마을과 간접적인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表 11에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호지방의 경우 평균 330미터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영남지방의 書院들은 평균 380미터 가량 격리되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시기별로는 16세기에 380미터 정도 이격되어 나타나다가 17세기에 들어 420미터 정도 격리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18세기 이후에는 290미터 정도 이격되어 있었다. 이중 陶山 書院이나 華陽書院과 같은 몇몇 書院들은 마을과 무관하게 수려한 自然景觀속에 立地하고 있으며, 이들 書院들은 曲과의 관련성속에서 立地가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表 11〉 마을과의 거리

시기	기호지방		영남지방	
	서원	직선거리 (m)	서원	직선거리 (m)
16세기	옥천서원	100	소수서원	100
	파산서원	100	옥산서원	250
	남산서원	500	도산서원	1250
17세기	내산서원	600	도잠서원	600
	덕양서원	250	병산서원	100
	덕천서원	250	회연서원	750
	노강서원	200	종천서원	600
	화양서원	500	입암서원	100
18세기 이후	죽계서원	500	명계서원	600
			도정서원	100
			이락서원	100
			노동서원	100
			송호서원	200
			인홍서원	250
			봉암서원	400
			수림서원	300
			위계서원	700
아산서원	600			
학삼서원	150			

### ③ 마을과의 관련성 변화과정

書院의 마을내 위치를 시대별로 분석한 결과, 表 12와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3단계의 變化過程을 거치며 발전되고 있었다. 1단계는 형성기에서 확산기에 이르는 시기로 마을 뒤 산기슭에 주로 書院의 立地가 결정되었으나, 2단계에 해당하는 발전기에는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마을 중앙에 위치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3단계의 쇠퇴기에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마을과 격리된 장소에 書院의 立地가 選定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書院의 마을내 위치는 형성기에 마을 뒤 산기슭에 立地가 選定되다가 발전기에 들어 마을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書院의 위치는 점차 마을과 격리된 곳에 위치하는 變化過程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호남지방과 영남지방 書院

의 마을내 위치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호남지방 書院은 表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형성기에 마을과 격리되어 위치하다가 과도기 이후 마을내에 書院이 위치하는 變化過程을 나타내고 있다.

表 14에서 보면, 영남지방 書院의 마을내에서의 위치는 형성기와 과도기 및 발전기에 마을과 인접한 마을 뒤 산기슭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나, 확산기와 쇠퇴기에는 마을과 격리되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書院의 마을내에서의 위치는 호남지방의 書院이 마을과 긴밀한 관계를 보이는데 반해, 영남지방의 書院은 마을뒤-마을 격리의 변화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書院의 立地는 주로 연고지를 배경으로 하여 丘陵流水型의 地形的 特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表 12> 마을내 위치의 時代別 變化過程

위치 / 시기		형성기	과도기	확산기	발전기	쇠퇴기	합 계	
마을 인 접	마을앞			1	3	4	8	75
	마을중앙	2	2	3	9	5	21	
	마을옆	1	3	3	2	1	10	
	마을뒤	8	10	5	12	1	36	
마을격리		6	3	4	5	10	28	
합 계		17	18	16	31	21	103	



(그림 5) 마을내 위치의 變化過程 模式圖

<表 13> 호남지방 書院의 마을내 위치 變化過程

위치 / 시기		형성기	과도기	확산기	발전기	쇠퇴기	합 계	
마을 인 접	마을앞					2	2	22
	마을중앙		1	1	6	3	11	
	마을옆		1	1	1		3	
	마을뒤		2	2	1	1	6	
마을격리		2		1	2		5	
합 계		2	4	5	10	6	27	

〈表 14〉 영남지방 書院의 마을내 위치 變化過程

위치 / 시기		형성기	과도기	확산기	발전기	쇠퇴기	합 계	
마을 인 접	마을앞				2	1	3	32
	마을중앙	1	1		2	1	5	
	마을옆	1	1	1	1	1	5	
	마을뒤	6	6	1	6	0	19	
마을격리		3	3	3		10	19	
합 계		11	11	5	11	13	51	

이러한 立地의 特性 및 變化過程은 時代別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6,17세기에 연고지를 중심으로 사찰터에 書院이 건립되거나 書堂·精舍가 발전하는 가운데 書院의 立地가 選定되고 있는데 반해, 18세기 이후에는 주로 연고지에 書院의 立地가 이루어지는 時代狀況을 보이고 있다. 또한 書院의 自然環境은 주로 丘陵流水型으로 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人文環境은 처음에 마을과 인접하여 書院의 立地가 이루어지다가 점차 마을과 격리되는 變化過程을 보이고 있다.

### 3. 綜合考察

일반적으로 書院의 立地는 山水가 뛰어나면서도 조용한 산기슭이나 계곡 또는 鄉村에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本 研究結果에 의하면, 書院의 立地는 시대상황을 토대로 하여 주변환경과의 관련성에 따라 類型化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時代別·地域別로 一連의 變化過程을 거치며 발전하고 있었다. 立地의 特性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變化過程을 살펴본 本 研究의 結果를 細部項目別로 既存의 研究들과 相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立地의 特性과 變化過程을 이진희(1992)의 연

구내용과 비교한 결과, 書院의 立地가 구릉의 중턱에 자리하여 先賢의 講道하던 곳과 인연이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書院의 立地가 마을과 거리를 두어 選定되고 있다는 연구내용은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書院의 立地가 형성기와 쇠퇴기에 마을과 격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과도기에서 발전기에 이르는 시기는 마을뒤나 마을중앙에 選定되고 있었다.

### IV. 結論

本 研究는 書院의 立地特性을 살핍으로써 立地의 時代的 變化過程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書院關聯資料의 수집과 現地踏查 및 設問調査를 통한 書院의 立地形式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였고 書院의 立地特性에 따라 類型化를 시도하고 각 類型의 特徵과 變化過程을 時代的 狀況이나 造營者의 思想과 相關하여 解釋하였다.

研究對象地는 現地踏查, 設問調査, 관련자료수집을 통해 書院造景의 原形 解析이 가능한 103개소의 書院을 事例로 選定하였다. 本 研究에서 나타난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立地選定背景은 정치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가운데 造營者의 場所性 認識과 場所의 性格變化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1) 緣故地에 書院이 건립되는 경우는 造營者의 場所性에 대한 認識을 토대로 하여 16세기에 先賢의 緣故地에 選定되고 있었으나, 17세기 이후에는 門中이나 家門의 先祖를 향사하는 가운데 主享者의 연고지에 건립되고 있었다.

2) 사찰터에 書院이 건립되거나 書堂·精舍가 書院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조선시대의 지배정신인 崇儒思想에 의해 장소에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2. 書院 주변의 環境은 주로 丘陵流水型의 지형적 특성을 지니며, 마을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地形的 特性은 시대별로 丘陵流水型 - 丘陵無溪流型 - 丘陵流水型의 변화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을내에서의 위치는 형성기에 마을과 인접하여 書院의 立地가 선정되다가 쇠퇴기 이후 마을과 격리되어 立地가 이루어지는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朝鮮時代의 書院은 정치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造營者의 思想이 가미되는 가운데 立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時代別·地域別로 일련의 變化過程을 통해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本 研究는 書院의 立地에 관한 전반적인 현상을 포착하여 特性 및 變化過程을 도출하는데 국한되어 진행되었으므로, 추후의 연구는 書院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作用要因이 되는 造營者의 思想을 중심으로 物理的 構成形式에 대한 考察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김동찬(1976)「李朝書院造景에 관한 研究」,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2p.
2. 김용기(1991)“造景史研究의 現況”,「한국조경학회지」, 19(2):94-98
3. 김은중(1993)「朝鮮時代 私學建築에 관한 研究」,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67p.
4. 봉화군(1992)「봉화문화유적총람」, 259p.
5. 안동군(1978)「安東書院總覽」, 146p.
6. 양수룡(1980①)“韓國書院造景에 관한 研究 Ⅱ. 남계서원 및 청계서원과 덕천서원”,「진주농전 논문집」, 17: 113-124
7. \_\_\_\_ (1980②)“韓國書院造景에 관한 研究 Ⅲ. 서악서원과 옥산서원”,「진주농전 논문집」, 18: 101-111
8. 예림서원(1989)「禮林書院誌」, 대영사, 260p.
9. 이상운(1993)「朝鮮時代 書院의 立地와 空間構成特性 및 變化過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8p.
10. 이재근(1992)「朝鮮時代 別墅庭園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26p.
11. 이증환著. 이익성譯 (1993)「擇里志」, 을유문화사, 370p.
12. 이진희(1992)“朝鮮時代 書院의 立地特性에 관한 研究 - 京畿道 地域의 書院을 중심으로 -”,「한국정원학회지」, 10(1):1-14
13. 정만조(1975)“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시론”,「한국사론」, 2: 212-280
14. \_\_\_\_ (1981)“朝鮮 書院의 成立過程”,「한국사론」, 8: 25-57
15. \_\_\_\_ (1989)“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한국사학」, 10: 77-119
16. 정재훈(1972)“朝鮮朝 書院의 考察”,「문화재」, 6: 88-98
17. 최근덕(1992)「韓國儒學思想研究」, 철학과 현실사, 473p.
18. 최기수·김영모(1993)“退溪集을 통하여 본 陶山書堂의 造營的 特性에 관한 研究”,「한국조경학회지」, 21(1):95-106
19. 최완기(1981)“朝鮮朝 書院成立의 諸問題”,「한국사론」, 8: 1-24
20. \_\_\_\_ (1991)「韓國의 書院」, 대원사, 126p.